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서울대학교문리대교수

권 태 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역사회」란 말은 영어의 Community의 번역이다. 그러나 커뮤니티가 반드시 지역사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로서 「지역 커뮤니티」라고 말할 때, 지역성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학에서는 물론 기타 분야에서도 이러한 비지역적 커뮤니티는 지역적 커뮤니티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라고 부르는 대신 그대로 커뮤니티라는 말로서 사용하고저 한다.

우선 커뮤니티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전통적인 농촌촌락」을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립된 것으로서 「학회」라든지 「자모회」등의 「어췌시이션」을 생각하면 커뮤니티가 어떤 것인가 막연히 윤곽이 잡혀질 것이다. 보통 커뮤니티의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 1) 제한된 지역내에 상당수 가구의 집중
 - 2) 주민간의 상당한 정도의 통합된 상호작용
 - 3) 공통성원외식 또는 소속감 이중 1)은 커뮤니티 발생의 조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2) 3)은 1)의 절집적인 현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 커뮤니티내에서의 대표적인 인간관계는 face

to face 관계 또는 1차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1차적 관계의 내용에는 「목적의 동일시, 관계의 가치내면화, 타인의 가치내면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자유와 자율적인 느낌, 비형식적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면 커뮤니티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동이 추가되고; 개인의 특수한 능력보다는 그와 전반적인 퍼스넬리티나 귀속적인 지위가 개인의 평가의 기준이 되고, 이치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판단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커뮤니티는 공업화 이전의 농업사회에는 어디에나 편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고 공업화되고 제도가 점점 분화되어 감에 따라 과거의 커뮤니티는 변모하거나 해체과정을 밟게 되었다. 오늘날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커뮤니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커뮤니티를 이념형적인 모형에 비추어 볼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살펴보자.

일차적으로 커뮤니티의 지역제한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가 문제가 된다. 우선 「이윤」을 커뮤니티의 최소단위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하나

의 커뮤니티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이 넓어지면 주민들의 통합된 상호작용이나 공통성원의식은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더 통합된 상호작용을 하고 공통성원의식을 갖고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한 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통합된 상호작용과 소속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도시에서는 face to face 한 접촉을 통해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 보다는 메스컴이나 그 도시의 상징적 문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상호작용을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

통합된 상호작용과 공통성원의식은 강해도 지역성을 결여한 집단도 있다. 예로서 「유대인 커뮤니티」나 「종교집단」이 그것이다. 이때 이들 집단을 커뮤니티가 부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실제 개인의 퍼스넬리티나 사회병리현상을 볼때 이들 집단도 지역집단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들 집단을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도 무리이다. 따라서 지역집단을 「거주 커뮤니티」 또는 「생태학적 커뮤니티」라 하고 위에서 언급한 집단을 「도덕적 커뮤니티」 또는 「정신적 커뮤니티」라 하여 이 두가지를 서로 구별하기도 한다.

앞에서 과거 전형적인 커뮤니티(예로서 농촌 촌락)내에서의 인간관계양상을 살펴 보았지만, 사람들의 퍼스넬리티와 행동양식은 그들의 커뮤니티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오늘날과 같이 커뮤니티의 성격이 다양해지고 각각의 커뮤니티간의 차가 크게 나타날 때 그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나아가서 커뮤니티 형태의 변화는 그

것이 물론 사회변화의 결정인 것이 보통이지만, 사회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가 좋다는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또 전형적인 커뮤니티의 의식과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역설적으로 강력한 커뮤니티(지역사회)의식과 유대는 해체되어야 하고 실제 어느정도 이상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커뮤니티의 해체는 서구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사회병리현상을 단연시킨다. 커뮤니티의 해체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가치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어떻게 무엇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커뮤니티가 보장해 주던 정서적 안정감은 박탈되고 통제수단의 결여는 일할 행위, 나아가서는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 「아노미」 안정성의 결여와 함께 긴장은 축적되고 소위 정신병이 흔히 나타나게 된다. 현재 서구사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커뮤니티」의식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단연되는 사회병리와의 투쟁의 최선의 수단이다. 공업화, 도시화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거나 그 과정을 밟는 곳에서 커뮤니티의 해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커뮤니티가 해체의 과정을 밟으면 밟을 수록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은 강조되어 지고 또 이를 위한 활동은 증대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대할 때 우리는 그 대상 집단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성파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① 동일성의 정도(문화적, 사회적, 지역적 배경 및 교육적, 직업 내지 경제적 배경 등) ② 인구이동 또는 성원이동의 정도 및 그 방향 ③ 주위의 상황 또는 대립된 집단의 유무와 그 정도 ④ 주민 또는 성원들의 가치지향 집단지향 對 개인주의적 지향등 ⑤ 리더십 관계 및 형태가 그것이다.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 그 사회내의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떤 한 문제를 갖고 접근할 때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예로서 농촌촌락과 같은 강력한 커뮤니티에 들어가 성원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어떤 지시를 하거나 설득을 할 때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때에는 우선

그들이 우리에게 In-group 또는 We의 감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모든 활동은 그들의 리더십 체계를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러나 반면 도시 커뮤니티와 같은 유대가 약하고 이질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을 대할 때 농촌촌락에서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면 별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어떤 개인을 도우려 할 때 그때에도 그 개인의 커뮤니티 배경을 살펴보고, 어떠한 커뮤니티의 변화를 경험하였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는 정신병원이 필요없다. 정신병원을 자주 세워 보았자 정신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커뮤니티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외국학자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이 강좌를 끝맺고자 한다.

간호학관계 석사 여러분에게

귀하의 연구노력하신 玉稿를 여러분의 후배를 위하여 또한 간호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협회 도서실에 비치하여 항상 참고자료가 되도록 2분씩 납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1부라도 꼭 기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